

# 나주 공직풍토 ‘변화의 바람’

## 희망부서 조사서 요직은 3명 사업과엔 14명 몰려

나주시 공직풍토가 민선 5기에 들어서 급변하고 있다.

그동안 선호돼 왔었던 주요 요직부서 지원자가 눈에 띄게 줄어든 반면 자신의 능력을 평가받을 수 있는 사업부서에 지원자가 대거 몰리는 등 공직내부의 인사관행이 뒤바뀌고 있다.

1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을 위해 최근 6급 이하 직원들을 상대로 희망부서 조사를 실시했다. 희망부서 조사결과 158명의 직원이 참여했으나 이 가운데 그동안 선호 대상이었던 ‘행정지원과’ 지원자는 불과 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사업부서인 교육지원과 및 기업지원실 등에는 13~14명 이상의

지원자가 대거 몰렸다.

또한 특이한 것은 읍·면·동에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본청 근무를 선호하는 것이 그동안 관례였는데도 10여 명의 직원이 읍·면 근무를 희망, 공직내부의 인사관행이 급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주시 인사담당 관계자는 “민선 5기에 들어서 ‘업무추진 능력을 최우선적으로 인사에 반영하겠다’는 임성훈 시장의 뜻을 직원들이 제대로 인식한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나주시는 지난달 17일자 사무관급 승진인사를 하면서 도시과에 근무하는 배모(6급)씨를 금남동장 직무대리로 승진발령하고, 건축과의 김모(6급)씨도 곧바로 건축과장 직무대리로 발령하는 등 요직부서 근무자를

제치는 일약 발탁인사를 단행한바 있다.

이 때문에 종전에 직원들이 선호했던 부서는 희망신청자는 감소한 반면 기피부서였던 사업부서와 민선 5기 역점사업 부서에는 지원자가 대거 몰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 흥경섭 부시장은 “직원들의 희망부서 조사에 의외의 결과가 나와 놀랐다”며 “요직을 거쳐야만 승진할 수 있다는 그동안의 인사 관행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나주시는 본인의 희망부서 지원을 기준으로 부서장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등 업무추진 능력을 중심으로 7급 이하 직원 356명에 대한 후속인사를 지난 28일자로 단행했다.

/중부취재본부=최승렬기자 srchoi@

## 전남 중부권



가로수 길 사이로...봄 햇살 속으로...

1일 담양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길을 찾은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자전거를 타며 봄기운을 만끽하고 있다. 이곳은 1970년대 가로수 시범사업으로 조성됐으며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도 뽑혔다.

/중부취재본부=노정훈기자 cjoh17@

## ‘농지은행 사업’ 본격화

### 나주농어촌공사 사업비 90억원 확보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지사장 임충근)는 올해 ‘농지은행’ 사업비로 90억여 원을 확보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에 나섰다.

나주지사는 올해 쌀 전업농의 경영

규모를 늘려주는 농지매매·임대차사업을 비롯해 ▲과원매매·임대차사업 ▲경영회생지원 사업 ▲농지 위·수탁 사업 ▲농지매입·비축사업 ▲65~70세 농업인이 경영이양을 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65세 이상 부부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는 ‘농지연금’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임충근 나주지사는 “농지은행사업은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업인을 위한 농정 핵심 사업”이라며 “농업인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사업홍보와 친절한 업무상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정철현기자 chungj@

| 光明日報 전남중부취재본부<br>광산·강진·나주·담양·영암·장성·장흥·화순 |        |
|------------------------------------------|--------|
| 본 부 장                                    | 김용기    |
|                                          | 기원태 국장 |
|                                          | 최승렬 부장 |
|                                          | 이상휴 자장 |
|                                          | 정철현 기자 |
|                                          | 남철희 기자 |
|                                          | 정운수 기자 |
|                                          | 김용호 기자 |
|                                          | 노정훈 기자 |

산질감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암군 수도사업소 관계자는 “맑고 깨끗한 수도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수도물의 생산과 수질관리, 공급시설 유지관리에 힘써 군민이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암군은 지난해 덕진면을 비롯한 6개 면에 사업비 45억원을 투입해 상수도 급·배수관로 매설과 가압장을 설치해 33개마을을 1200여세대에 지방상수도 공급을 완료했다. 영암읍과 삼호 대불산단의 노후 수도관 교체·정비와 함께 구역유량계를 설치해 유수율을 69%에서 73%까지 끌어올려 절수효과는 물론 2억여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다.

/중부취재본부=이상휴기자 lsh@

## 전 북

## 서울대, 순창 건강장수연구소 위탁 운영

순창군 건강장수연구소가 ‘서울대 노화고령사회연구소 순창센터’로 전격 운영된다.

이를 위해 순창군과 서울대는 지난 28일 서울대 본부 소회의실에서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협약서에는 강인형 순창군수와 서울대 신혜영 산학협력단장, 관리·운영 책임을 담당할 노화고령사회연구소 박상철 소장이 각각 서명했다. 이번 위탁계약을 통해 건강장수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앞으로 서울대에서 5년간 위탁운영해 ‘서울대 노화고령사회연구소 순창센터’라 칭하고 이경제 교수가 실질적인 운영을 맡게 된다.

서울대는 재산의 유지관리, 기반조성과 함께 노화 의생명, 고령친화제품 개발, 은퇴 설계교육, 건강장수 교육 등을 담당하게 된다.

순창군은 노후설계 지원사업, 서울대 평생교육원 유치 등과 연구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과 시설 운영 등을 지원하게 된다.

앞으로 연구소가 본격적으로 가동하게 되면 연구사업으로써 ▲장수(長壽)인자를 찾기 위한 노화·종적관찰 연구 ▲장수 및 기능성 식품연구 ▲지역개발 사업은 ▲베이비부머 및 노년층을 위한 노후설계 프로그램 전개 등 연구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또한 서울대 평생교육원 교육프로그램을 편성해 노후생활을 위한 재수한 융합과정을 개설토록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경제 서울대 교수는 “건강장수연구소는 고령사회로 인한 어려운 농촌지역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농촌지역도 발전할 수 있다는 신개념 지역시스템을 도입해 새로운 농촌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강인형 순창군수는 “연구소를 중심으로 순창이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세계적인 장수고을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남원 파프리카 출하요~”

요즘 남원 운봉농협 남산물 산지유통센터에서 파프리카 공동 선별작업이 한창이다. 남원지역은 지난 2001년도부터 파프리카 재배를 시작해 현재 35농가(17.7ha)에서 연간 1700여t을 생산, 55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

# 군산 버스터미널 이전 추진

## 넓고 편의시설 부족...‘복합 터미널’ 신축 검토

군산시가 구도심인 경양동에 위치한 고속·시외 버스터미널의 이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추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군산시에 따르면 현재 터미널의 시설이 낡은데다 편의시설도 부족해 이용객들의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현대식 종합 터미널을 신축해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우선 시는 하루평균 2800여명이 사용중인 현 시외버스터미널의 대합실을 오는 6월까지 리모델링해 이전 때까지 사용하기로 했다.



이는 터미널 이전의 기본 방향으로 이용의 편리성과 접근성, 생활권, 경제성 등을 우선 고려할 계획이다. 터미널도 단순 승·하차 기능에서 벗어나 쇼핑과 휴식, 레저를 할 수 있는 ‘현대식 복합터미널’로 건립한다는 복안이다.

시는 향후 새만금시대가 본격화돼 인구증가 등 인구 50만명 국제관광 기업도시로 성장하는 시기에 맞춰 도시기본계획과 연계, 우선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08년 3월 입안한 ‘2020년 도시기본계획’과 향후 교통정비 기본계획에 각각 당북IC와 신역사 주변을 터미널 이전 계획부지로 검토한 바 있으나, 현 터미널 이전시 공동화현상 발생으로 원도심 경계침체를 우려해 다각적으로 구상중이다.

이를 위해 오는 4월에 교통업체 관계자와 교통 및 도시계획 관계 전문가 등이 참가하는 간담회를 열기로 했으며 또한 이달부터 10월까지 추진

할 ‘대중교통 기본계획 용역’에 터미널 신축이전에 필요한 기본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터미널 이전은 구도심 공동화वाद 맞물리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사업”이라면서 “무엇보다 새만금 방조제 개통으로 밀려드는 관광객과 각종 산업시설의 입주로 팽창하는 도심 인구의 수요에 대비해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이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 “민간육종 연구단지 유치 선점”

### 道, 산·학·연·관 등 전문가위원회 구성

전북도가 농수산식품부 주관의 ‘2020 종자산업 육성대책’의 핵심사업인 ‘민간육종 연구단지’(시드 밸리) 유치에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2009년 12월 TF팀을 구성·운영하고 연구육성 추진, 종

자업체와의 워크숍 등 유치준비를 꾸준히 해왔으며, 최근 산·학·연·관 등 10명의 종자관련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했다. 농식품부가 발표한 공모지침에 따르면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한후 대상지를 선정해 총사업비 270억원을 (국고 100%, 설계에 따라 최대 562

억원)을 투입, 30~100ha 규모의 민간육종 연구단지를 조성한 후 20개 종자업체를 입주시켜 종자생산 및 수출을 선도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오는 24일까지 각 도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은 후 서면, 현장평가 등을 거쳐 다음달중에 대상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민간육종연구단지를 유치할 경우 종자에서 식품산업까지 연관산업을 모두 갖추게 돼 시너지효과와 극대화 가능하다”며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 단 신

### 전주동물원 4일부터 재개장

전주시는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을 우려해 폐장했던 전주 동물원을 한 달만인 오는 4일부터 재개장한다.

전주시는 “2차에 걸친 구제역 백신 접종으로 동물들의 감염 가능성이 크게 낮아진 데다 전국적으로도 구제역과 AI가 점차 소

강 국면에 접어들고 있어 재개장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철저한 방역을 위해 개장 이후에도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입장객을 대상으로 한 소독도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다.

/전북취재본부=김용철기자 k0765@

### 전북농기원 가족 매몰지 ‘바실러스균’ 보급

전북도 농업기술원(원장 조영철)은 도내 가족 매몰지(매지 2·가급류 7곳)의 악취제거와 오염방지를 위해 미생물 ‘바실러스균’ 종균을 배양해 확대 보급한다.

이번에 보급하는 미생물은 ‘바실러스균’일종으로 강알칼리 상태의 산도(pH) 11에서 활동이

왕성한 균이다.

전북도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바실러스균’은 미생물 스스로 악취칼리성 조건을 pH 9.5 이상으로 상승시켜 매몰지내 악취발생과 환경오염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 군산시 ‘스마트오피스 환경구축 사업’ 선정

군산시가 전북도, 무주군, 고창군과 함께 지난 28일 행정안전부 주관의 ‘2011년도 스마트오피스 환경 구축을 위한 SBC시스템 구축’사업 국비지원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군산시는 지난해부터 오는 2013년까지 업무용 컴퓨터 1600여대의 가상화 단말기 교체계획

을 수립, 지난해 1차 시범사업으로 행정업무용 PC 100대를 가상화 단말기로 교체보급하고 행정업무를 추진했다.

이번 사업은 중앙서버에서 모든 자료를 관리토록 해 ▲능력향상 ▲PC 사용·폐기 따른 전력 절감 ▲오염원 제거 등이 기대된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 김제소방서 봄철 산불예방·진화 활동

김제소방서(서장 김화성)는 매년 봄철(3~5월)에 집중되고 있는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전국 산불 발생건수 412건 가운데 봄철 발생건수(226건)

가 55%를 차지하고 있다.

김화성 서장은 “눈·발두름 소각시 사전신고와 입산시 라이터·담배 등 화기를 갖고 가지말 것”을 당부했다.

/전북취재본부=홍윤선기자 hnews@